

“가정의 달, 낭만 가득 남도로 가족여행 오세요”

전남도 5월 추천 관광지

축제·체험·힐링·야경·봄꽃 등 코스 다채 섬방문의해·섬박람회 연계 해양콘텐츠도

전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꽃과 정원, 걷기만 해도 마음이 뽕뽕하는 힐링 여행지, 낭만 가득한 야경·감성 여행지까지 가족, 연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남 대표 여행지를 추천했다.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는 담양 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2026 프레(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제격이다. 담양 대나무축제는 5월1-5일 관방제림과 죽녹원 일원에서 열려 대숲 산책과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보성 한국차문화공원에선 1-5일 차 따기, 다례 시연, 녹차 음식 체험 등 전통 차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선 2-7일 해조류 전시, 수상 플라잉보트쇼, 김이스트림 만들기 등 해양 체험 콘텐츠가 펼쳐진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지로는 고흥우주항공축제, 해남공룡대축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행사가 있다. 고흥우주항공축제의 경우 2-5일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열리며 우주로버 파 일러 체험, 우주복 체험, 발사체 전시 등을 운영



전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연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힐링 여행지 등 전남 대표 여행지를 추천했다. 사진은 고흥 우주항공축제 모습.

<전남도 제공>

한다. 해남공룡대축제는 해남 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공룡로봇쇼와 공룡발자국 탐험, 캐릭터 공연을 선보이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3-5일 어린이 뮤지컬, 버스킹,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휴식을 원한다면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화순적벽 버스투어, 강진 다산초당·백운동 원림을 추천한다. 편백숲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길 산책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2-3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강진 다산초당과 백운동 원림은 역사와 전통정원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색 여행지다. 연인을 위한 야경·감성 여행지도 많다. 목포

평화광장에서선 9일 오후 8시 목포해상W쇼가 열려 케이팝 공연, 바다분수, 불꽃쇼가 어우러진 야간 콘텐츠를 선보인다. 여수 해양공원과 낭만 포차 일원에선 10월 말까지 매주 금·토요일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운영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선 5일 '별빛세레나데'가, 화순 꽃강길에선 5월 한 달 음악분수가 운영된다.

봄꽃 나들이 명소로는 곡성세계장미축제, 신안 라벤더 축제, 무안 도리포 유채꽃 축제, 구례 지리산 노고단이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22-31일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려 1천4종의 장미와 야간 조명을 선보인다. 신안 퍼플섬 라벤더정원에선 15-25일 라벤더 축제가 열리고, 무안 도리포에선 1-2월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구례 지리산 노고단에선 5월 초 탈진달래, 5월 말 철쭉 등 봄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전남 섬 방문의 해와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섬·해양 관광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2일 여수 이순신광장에선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리며, 30일 여수 낭도 일원에선 기부런(Run for Islands)이 열린다. 참가자는 다도해 해상교량을 잇는 10km 코스를 달리며 섬과 바다를 즐기며, 참가비 일부는 여수 섬 지역 노인·아동 단체 등에 전달된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의 다채로운 축제와 관광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市, 명품강소기업 육성 참여 모집

내달 28일까지 신규·연장 12개사 선정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금융·세제 혜택

광주시는 29일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10기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5월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성장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 주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2년 동안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기업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광주지역에 위치한 업력 3년 이상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

&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자 프리-명품강소기업 총량을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로 늘렸다.

광주시는 기존 프리-명품강소기업 중 7개사가 지정 만료를 앞둔 점을 고려해 이번 모집에서 신규 지정 및 지정 연장 기업 총 1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062-602-722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기업에는 프리-명품강소기업 지정서와 현판이 주어진다.

선정 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고급화까지 다양한 맞춤형 기술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광주시 경영안정자금 한도 확대(3억~5억원) 등 금융 지원과 세제·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내달 2일 시민홀서 '어린이날 축제'

종이비행기·미술·버블쇼 행사 '풍성' 피크닉존·에어바운스 등 편의공간도

광주시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5월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특별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모범어린이 표창 등 기념식을 시작으로 메인 이벤트와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메인 이벤트인 '종이비행기 날리기'와 '박 터트리기'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3개 팀(화정·각화·용봉)이 선보이는 난타와 댄스 공연을 비롯해 전문 마술사의 공연과 버블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페이스페인팅, 스티커 타투, 네일아트, 슬라임 체험, 목재 놀이 등 5종의 체험 부스와 함께 기차놀이, 포토존 등 이벤트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광주·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브레드', '조몽이' 등 캐릭터 인형탈과 사진 찍기 및 홍보영상을 통해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피크닉존과 영유아·저학년을 위한 에어바운스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청 내 어린이 안전체험관도 행사 종료 때까지 운영한다.

나하나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가족 모두

가 함께 참여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道, 하절기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 운영

전남도는 29일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절기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휴가와 각종 행사 등 단체활동이 늘면서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질병관리청, 22개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시·군과 함께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생 상황을 보고·공유하는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안전한 실버 한 걸음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교통안전 대란민국
오늘도
무사고